

광주에 복합문화공간 3년간 16개 세운다

작은도서관·체육센터·돌봄센터 ... 동사무소 윗층 등에 조성
생활SOC 사업 선정 국비 494억원 확보 ... 일상의 변화 기대

오는 2022년까지 광주 도심 곳곳에 작은 도서관, 체육센터, 돌봄·문화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 16개가 새롭게 생겨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사회간접자본(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광주시가 신청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면서다.

대부분의 사업은 기존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1층에는 동사무소 업무공간, 2~4층은 도서관이나 돌봄센터, 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과 가까운 곳에서 독서와 육아·건강관리·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셈이어서,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일상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에서 시가 신청한 16개 사업 모두가 선정됐다. 사업 추진에 쓰일 국비 494억원도 확보했다.

생활SOC는 시민들이 먹고, 자고, 자녀

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로·항만·철도 등 기존 SOC만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생활 밀착형 시설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서부권역 노인복지시설(서부권 노인건강타운) 관련 사업과 장애인회관 복합시설 사업 2가지다. 2022년까지 광산구 비아동 일원에 예산 343억원을 들여 노인들을 위한 건강타운 부지에 국비 41억원을 포함, 총 75억을 들여 연면적 3100㎡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체육센터·작은도서관을 짓는다.

광주시가 2022년까지 추진 중인 광주장애인회관(신장동) 건립 사업도 단순히 장애인회관만 짓는 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

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함께 짓는다.

동구는 3개 사업이 선정됐다. 동구 내남동 복합공공도서관, 학동 가족센터, 계림동 행정복지 복합센터 건립 사업이다. 내남동 공공부지에 자리잡은 복합공공도서관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가 함께 입주하게 된다. 학동 가족센터와 계림동 행정복지센터는 각각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해 가족센터와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건립한다.

서구에는 두드림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2022년까지 들어선다. 상무중·치평중 통폐합 추진으로 생겨날 부지에 국비 45억원을 포함, 108억원을 들여 주민과 학생 접근이 쉬운 평생학습관, 청소년도서관, 진로체험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만든다.

남구에서는 노대동 가족사랑나눔센터,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도서관·문화센터 등), 월산4동 행정복합센터(작은도서관·주거지주차장), 봉선동 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 봉선 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면서 생겨나는 공간에는 작은도서관과 문화센터가 함께 들

어선다.

북구는 신용동 복합공공도서관(돌봄센터·도서관), 체육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갖춘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두암동 삼정초 부지), 중흥동 복합공공도서관(도서관·돌봄센터),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주거지 주차장 포함)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

광산구 송정동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오는 2022년 문을 연다. 부지면적 1622㎡, 연면적 7355㎡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센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 문화 공간이 들어서 주민들과 만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부수적으로 일자리도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건립되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의병기념시설’ 과시용 정책 광주·전남 갈등 심화 우려

市, 377억 들여 호남의병관
道, 480억 남도의병 역사공원
경쟁적 추진 ... 예산 낭비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려 850억원을 들여 ‘의병기념시설’ 건립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시·도가 예산 확보 방안 없이 같은 주제의 의병기념시설을 추진하면서 ‘보여주기식’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복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예산 낭비 뿐 아니라 호남 의병을 ‘광주’와 ‘전남’ 의병으로 쪼개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의 경우 한말 호남의병 최대 격전지인 광산구 어등산 일대에 호남의병관을 추진중이며 전남도도 임진왜란부터 3·1운동까지 호남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에 나섰다.

광주시는 최근 377억 5000만원을 들여 5만㎡ 부지에 5200㎡ 규모의 호남의병기념관을 조성키로 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전남도도 480억원을 투입, 33만㎡ 부지에 1만6500㎡ 이상의 전남 19개 사군 904명에 이르는 임진왜란 호남의병과 한말 호남의병 181명을 대상으로 하는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짓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다.

기념시설 구성도 비슷하다. 광주는 임

진왜란부터 8·15광복까지를 전시범위로 해 추모·전시·체험 관람 시설, 강의실·속박 등 문화교육관, 식당·판매소 등 편의 시설 등으로 호남의병관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공원에 추모·기념·전시실, 체험·교육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편의시설 등에 남도역사 북카페, 미니어처 전시실, 어린이 전용 체험관 등도 검토하고 있다.

같은 주제로 비슷한 콘텐츠가 담긴 기념시설을 각각 370억, 480억을 들여 만들겠다는 것 뿐 아니라 미흡한 예산 확보 대책도 비슷하다.

전남도는 480억원의 예산 중 국비로 280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여태껏 단 한 푼도 부처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박물관 건립’ 공특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어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보존처도 ‘현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지자체 지원사업이 없다며 ‘예산 지원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접한 시·도가 예산 부족에 허덕이면서도 같은 주제의 정책을 협의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데 따라 ‘치적 전시용’ 정책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수단체 ‘조국 규탄’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한글날인 9일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하야 2차 범국민 투쟁대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하야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송례문 앞까지 약 1.7km 구간을 차지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1가 방면, 서대문 방면으로도 진출했다. 앞서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보수 성향의 정당과 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당시에는 광화문 남측광장~서울역까지 2.1km 구간이 통제됐고, 주최 측은 300만명규모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조국 구속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은 감옥 가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가 개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 태풍 ‘하기비스’ 한국 비껴가 일본 도쿄 관동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9호 ‘하기비스’가 9일 오전 일본 열도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이 태풍은 토요일인 12일 밤사이 일본 도쿄 주변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하기비스’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관 북서쪽 약 840km 해상에서 시속 13km의 속도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15hPa(헥

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무려 초속 55m(시속 198km)다. 초속 15m 이상 강풍이 부는 반경은 480km에 달한다.

태풍은 중심 부근 최대 풍속에 따라 ‘약’(초속 17~25m), ‘중’(초속 25~33m), ‘강’(초속 33~44m), ‘매우 강’(초속 44m 이상)으로 분류된다. 미국합동태풍경보센터(JTWC)는 ‘하기비스’를 ‘슈퍼 태풍’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한경쟁 무인텔들의 무한 번신 ▶6면

정찬주 다규 소설 ‘광주 아리랑’ ▶9면

황규봉 교수의 ‘현대 인문학’ ▶22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좋습니다!

- 맑고 깨끗한 상수원** 상수원 주변에 공장이 없는 맑고 깨끗한 섬진강 수계인 동북호와 주암호에서 원수를 가져옵니다.
-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철저한 수질관리**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17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과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에 적합합니다.

수돗물 절약 실천

- 화장실과 목욕탕에 절수기 설치하기
- 양치컵 사용하고 샤워시간 줄이기
- 설거지 할 때 물 받아서 하기
- 허드렛물은 버리지 말고 청소할 때 재사용 하기
- 합성세제 사용량을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하기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http://water.gwangju.go.kr